

R 5월 ETF Insights

2025.5.2 KB자산운용 ETF상품기획팀

- 당사 준법감시인의 승인 번호가 없는 제안서는 당사 내부절차를 준수하여 정식 승인된 제안서가 아님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현재 시점의 투자대상 에 대한 판매 직원의 일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작성된 것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운용 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되지 않은 사항의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 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본 자료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 기초한 투자결정과정과 투자결과에 당사가 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Rise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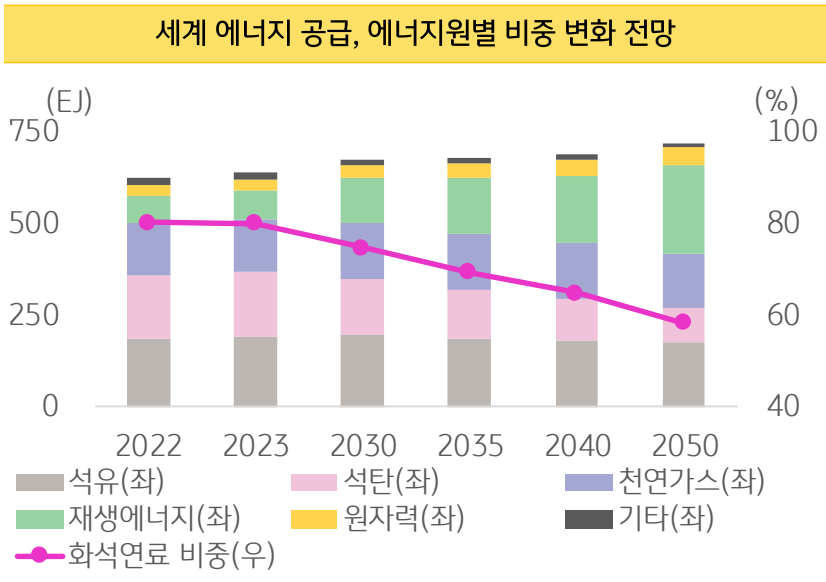
R 트럼프가 그리는 강한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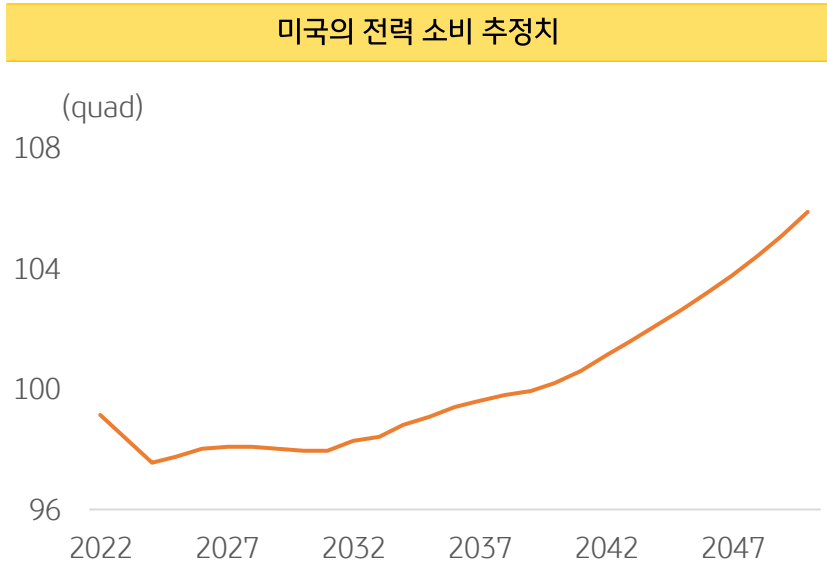
※ 자료: KB자산운용

R 트럼프가 그리는 강한 미국 3) 에너지 안보

- 전력 생산 방식의 다양화, 탄소 중립(Net Zero)으로의 전환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며 **에너지믹스(Energy Mix) 다변화 진행 중**
- 미국은 AI의 보급, 가상화폐 채굴,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 성장으로 전력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가 늘어나는 중.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안보 정책은 단순히 화석 또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아닌 **미국에 적합한 에너지를 찾아 최적의 에너지믹스를 구축하는 것**



※ 출처: IEA, KB자산운용



※ 출처: EIA, KB자산운용

R 트럼프가 그리는 강한 미국 3) 에너지 안보

- ‘Drill, Baby Drill’로 대표되는 트럼프 2기의 핵심 공약은 자국 내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통한 물가 안정 추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재편성을 겪으며 에너지는 국가경쟁력과 안보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에너지 국가비상사태 선포,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설립 등을 통해 화석연료 생산과 인프라 건설에 적용되던 규제 완화를 지시하는 등 발빠른 정책 행보

2017~2025년 미국 대통령별 주요 에너지 정책		
행정부	시기	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 세부사항
트럼프 행정부 1기	'17.03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 서명, 전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CPP) 등 재검토 및 폐지
	'17.06	파리기후협약 탈퇴
	'18.01	시추 활동 가능 지역 대폭 확대
바이든 행정부	'21.01	파리기후협약 복귀 미국 내 신규 시추 60일간 중단, 연방정부 공공 부지 내 채굴 금지 행정명령 Keystone XL 파이프라인 건설 중단 및 프로젝트 취소
	'22.04	연방정부 공공 부지 임대 재개했으나 채굴 이익 부담금 상향
	'23.03	알래스카 북서부 대형 유전 개발 사업 승인
	'24.01	신규 LNG 프로젝트 인허가 중단
	'24.04	연방 부지 석유/가스 임대 로열티 상향, 시추 임대 경매 입찰가/보증금 인상
트럼프 행정부 2기	'25.01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에너지 국가비상사태 선포 화석연료 생산, 인프라 건설 규제 완화, 북극 시추 금지 조치 폐지 등 신규 LNG 프로젝트 수출 허가 재개, 신규 해상 풍력 임대 중단
	'25.02	루이지애나 LNG 프로젝트의 아시아 및 유럽 향 수출 허가 승인 국가 에너지 지배 위원회 설립

※ 출처: iM증권, KB자산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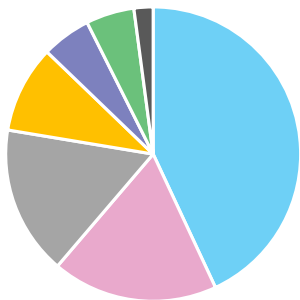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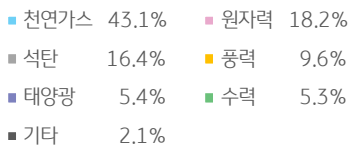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 관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핵심 구성원	1) 의장: 내무부 장관 Doug Burgum(North Dakota 주지사 출신) 2) 부의장: 에너지 부 장관 Chris Wright(Liberty Energy의 CEO) 3) 위원회: 트럼프 행정부 내각 주요 인사. 의장이 위원회 소집 및 주체
목적	1)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안정적, 저렴하게 생산 2) 경제적, 외교적 질서 확립 바탕으로 MAGA 도모
주요 내용	1) 미국의 에너지 우위를 위한 생산량 증대 모색 2) 모든 에너지 허가·생산·발전·유통·규제·운송·수출 절차 개선 3) 혁신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규제 철폐 4) 민간 부문 투자 강화 및 연방 정부와의 협력 도모 5) 전력 생산량의 신속한 증대 6) 에너지 인프라 승인 촉진 7) 뉴잉글랜드, 캘리포니아 등 미국 내 천연가스 비공급 지역 내 파이프라인 건설 승인 촉진 8) 폐쇄된 발전소의 재가동 촉진 및 SMR 가동 9) 에너지 생산 인센티브 논의 등 투자 유치

※ 출처: iM증권, KB자산운용

R 트럼프가 그리는 강한 미국 3) 에너지 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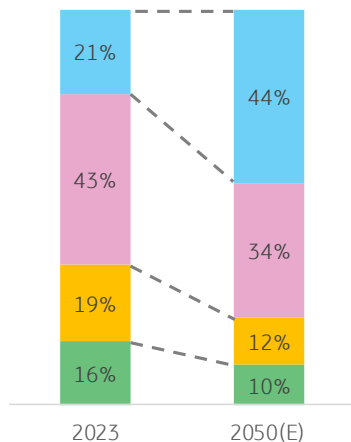
- 미국 3대 발전원은 천연가스, 원자력, 석탄. 2050년에는 신재생 에너지와 천연가스 비중이 7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짐)과 입지 문제로 천연가스, 원전 등 기존 에너지원은 중장기적으로 이를 보완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
- 특히 천연가스는 관세 전쟁의 핵심 카드로 활용 중. 상호 관세 대상에서 에너지 품목을 제외해 협상카드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 제시. 일본, 인도, 베트남 등에서 미국산 LNG 수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

2023년 미국 발전원별 비중



미국 Energy Mix 장기 전망

■ 석탄 ■ 원자력 ■ 천연가스 ■ 신재생



※ 출처: EIA, 하나증권, KB자산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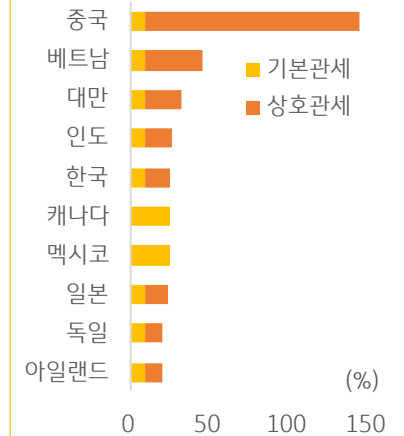
대미 무역 상위국의 상호관세율

국가별 대미 무역흑자



※ 출처: 상무부, 언론보도, KB자산운용

미국 주요 교역국 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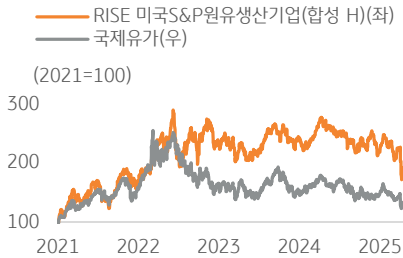


※ 출처: EIA, iM증권, KB자산운용

R 트럼프가 그리는 강한 미국 3) 에너지 안보

RISE 미국원유생산기업(합성H) (219390)	RISE 미국천연가스밸류체인 (003620)	RISE 글로벌원자력 (442320)	RISE 글로벌데이터센터리츠(합성) (375270)
투자 위험등급 1등급	투자 위험등급 2등급	투자 위험등급 2등급	투자 위험등급 2등급
TER(연) 0.39%	TER(연) 0.40%	TER(연) 0.52%	TER(연) 0.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상장 원유/가스 탐사·생산 전문 기업에 집중 투자. 유가 움직임과 높은 상관관계로 원유 시장 상승 기회 포착 미국 에너지 안보 중요성 확대에 규제 완화 수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력 부족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에너지원 천연가스. 미국은 세계 1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자 수출국 수익창출 방식으로 밸류체인을 분류, 생산(30%), 인프라(50%), LNG수출(20%) 비중으로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은 탄소 배출량,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상용화로 주목받는 원자력 산업 글로벌 70%, 국내 30% 비중으로 우라늄 채굴, 발전소 건설 등 원자력 관련 기업에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클라우드 등 데이터 트래픽 증가의 수혜가 예상되는 데이터센터 및 인프라 리츠에 투자 낮은 경기민감도로 꾸준한 배당 성장 기대
상위 5개 종목 및 비중(%)	상위 5개 종목 및 비중(%)	상위 5개 종목 및 비중(%)	상위 5개 종목 및 비중(%)
Expand Energy 3.3%	Enbridge 16.8%	Constellation Energy 20.4%	American Tower 16.2%
EQT Corporation 3.2%	Exxon Mobil 13.2%	Cameco 19.4%	Digital Realty 16.1%
CNX Resources 3.1%	Williams Cos 12.1%	두산에너지빌리티 13.5%	Equinix 14.7%
Marathon Petroleum 3.1%	Chevron 11.1%	BWX Technologies 9.8%	Cellnex Telecom 5.2%
Texas Pacific Land 3.1%	Kinder Morgan 8.7%	HD현대일렉트릭 8.0%	INWIT N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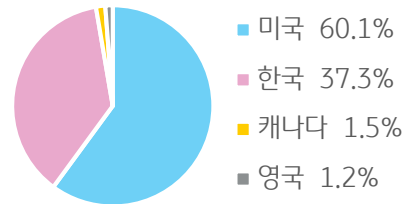
국제유가, S&P원유생산기업 지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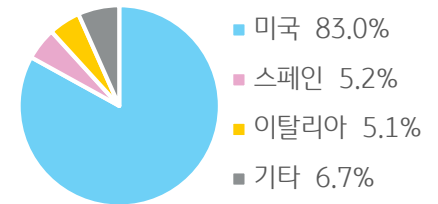
천연가스 밸류체인 구성 및 특징

생산	인프라	LNG수출
지하 천연가스 추출 기업	생산, 가공, 운송 등에 필요한 설계, 구축, 운영 기업	국제 시장으로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기업

편입 포트폴리오 국가 구성



편입 포트폴리오 국가 구성



※ 출처: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KB자산운용 '25.4.30 기준

R RISE ETF 신상품 소개: RISE 테슬라고정테크100(0047P0)

5월 13일 상장 예정

✓ 혁신기업 테슬라 25% + 시장지수 75%의 만남, 성장성과 안정성을 한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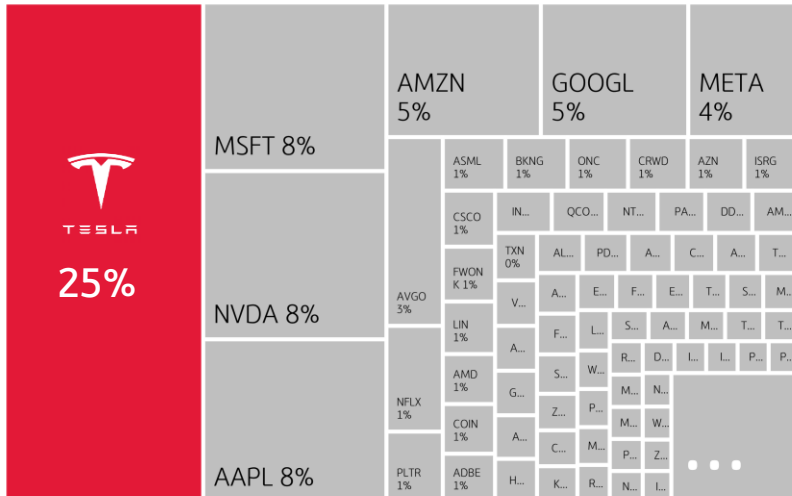
▪ 성장 잠재력을 지닌 대표적인 혁신기업 테슬라 주가 참여도는 높이고, 미국 주요 기업에 분산 투자해 종목·산업 쏠림 리스크는 낮춘 ETF. 대표지수형 상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개별 주식 투자보다는 낮은 변동성을 추구

① **KEDI 미국테크100 지수**: 미국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제조업, 정보기술, 전문 과학·기술 등의 산업 내 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시가총액과 성장성을 고려해 100개 종목을 선정

② **테슬라**: 개인용 전기차 사업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판매와 로보택시 서비스 등 모빌리티 사업 확장 추진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의 ESS(에너지 저장장치) 사업과 독보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신성장 동력이 될 전망

RISE 테슬라고정테크100 포트폴리오 구성



테슬라고정테크100 지수와 유사 지수의 성과 비교



※ 출처: KEDI, KB자산운용(2025년 4월 리밸런싱 기준)

※ 출처: KEDI, Bloomberg, KB자산운용

R RISE ETF 신상품 소개: RISE 팔란티어고정테크100(0047R0)

5월 13일 상장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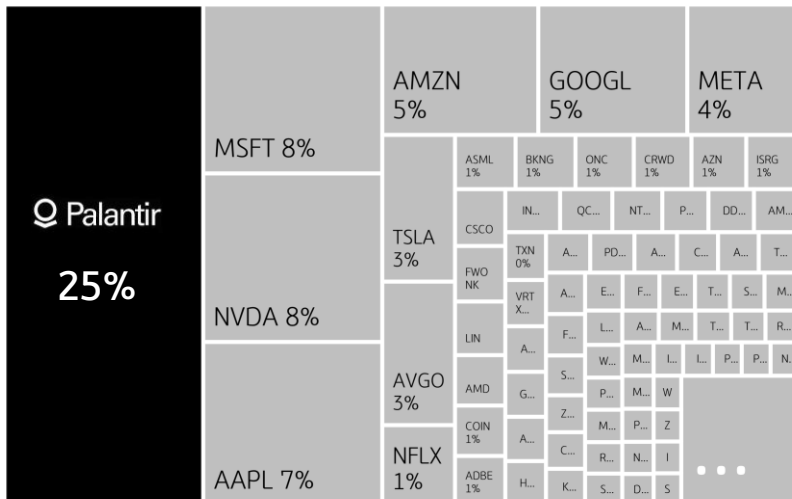
✓ 혁신기업 팔란티어 25% + 시장지수 75%의 만남, 성장성과 안정성을 한번에

▪ 성장 잠재력을 지닌 대표적인 혁신기업 팔란티어 주가 참여도는 높이고, 미국 주요 기업에 분산 투자해 종목·산업 쏠림 리스크는 낮은 ETF. 대표지수형 상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개별 주식 투자보다는 낮은 변동성을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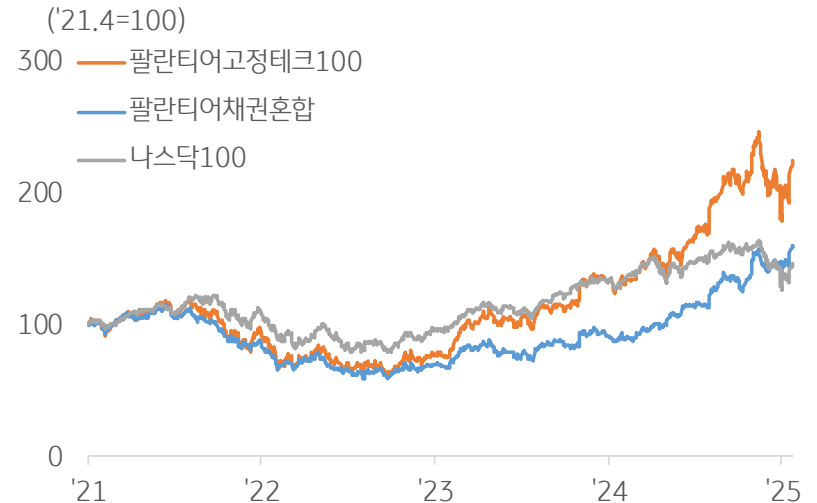
① **KEDI 미국테크100 지수**: 미국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제조업, 정보기술, 전문 과학·기술 등의 산업 내 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시가총액과 성장성을 고려해 100개 종목을 선정

② **팔란티어**: 오랜 기간 미국 정부와 협업해 온 AI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국방 첨단화, AI 패권 강화로 수혜 예상
AI 채택 여부가 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며 민간 매출까지 고속 성장 중(2024년 기준 민간기업 매출 비중 45%)

RISE 팔란티어고정테크100 포트폴리오 구성



팔란티어고정테크100 지수와 유사 지수의 성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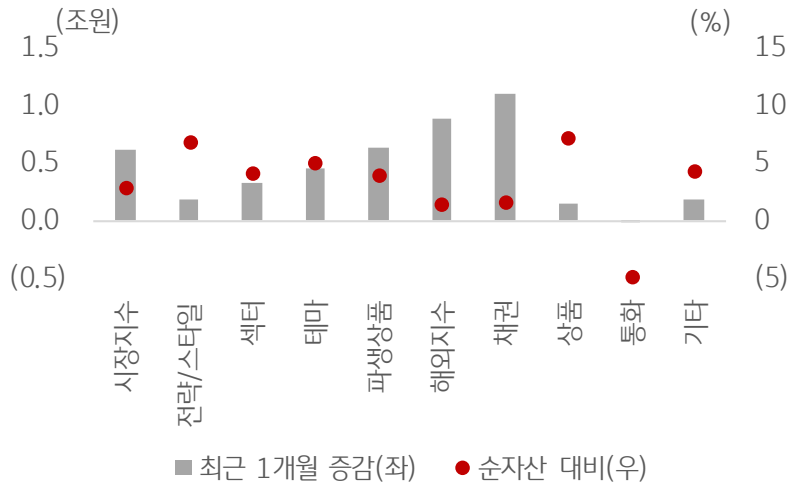
※ 출처: KEDI, KB자산운용(2025년 4월 리밸런싱 기준)

※ 출처: KEDI, Bloomberg, KB자산운용

R 국내 ETF 시장 동향

- 지난 3월 역성장을 기록했던 국내 ETF 시장은 대부분의 유형에서 순자산이 증가하며 전월 대비 약 5조원 늘어난 191조원을 기록.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급락했던 증시가 유예 조치 이후 낙폭을 회복하자 국내외 대표 지수형과 테마형 ETF 등에 고르게 자금이 유입. 국내의 경우 대선과 추경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관련 상품이 각각 3천억원 이상 순증
- 주식과 채권 모두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머니마켓액티브 등 단기 자금 유형의 상품으로 자금 유입 지속. 최근 1개월간 관련 상품의 순자산은 1.1조원 증가
-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시를 뒤이을 테마로 주목받으며 RISE 미국휴머노이드로봇 등 관련 ETF 3종이 신규 상장. 구조적 전력 수요 증가와 에너지 안보 강화 기조 속에 증장기 성장이 예상되는 천연가스 기업에 투자하는 RISE 미국천연가스밸류체인 ETF도 상장

ETF 유형별 순자산 증감 현황



※ 출처: KOSCOM, KB자산운용, '25.4.30 기준

최근 1개월 주요 신규상장 ETF

ETF명	금액(억원)
TIGER 머니마켓액티브	2,203
TIGER 미국초단기(3개월이하)국채	986
KODEX 미국AI소프트웨어TOP10	247
KODEX 인도Nifty미드캡100	213
TIMEFOLIO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	110
RISE 미국휴머노이드로봇	106
RISE 미국천연가스밸류체인	101
RISE 인도디지털성장	101
SOL 팔란티어미국채커버드콜혼합	87
PLUS 글로벌휴머노이드로봇액티브	86

※ 출처: 한국거래소, KB자산운용, '25.4.30 기준

R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ETF 직접투자 현황

- 국내 투자자들은 주가 급등락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기술주 ETF 매수. 반도체 +3배 ETF 순매수 금액은 전월 대비 20억 달러 증가한 83억달러를 기록. 나스닥100 지수와 테슬라,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 레버리지 상품에도 자금 유입 지속
-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과 변동성 장세가 장기화되며 투자자들의 전략도 점차 다양화. 안전자산(금, 미국채), 인컴형(배당주 및 커버드콜)을 비롯해 반도체 -3배 및 테슬라 -2배와 같은 인버스 상품, 엔화 가치를 추종하는 CurrencyShares Japanese Yen Trust(FXY), VIX 선물을 -0.5배로 추종하는 ProShares Short VIX Short-Term Futures ETF(svxy) 등이 외화증권 순매수 상위권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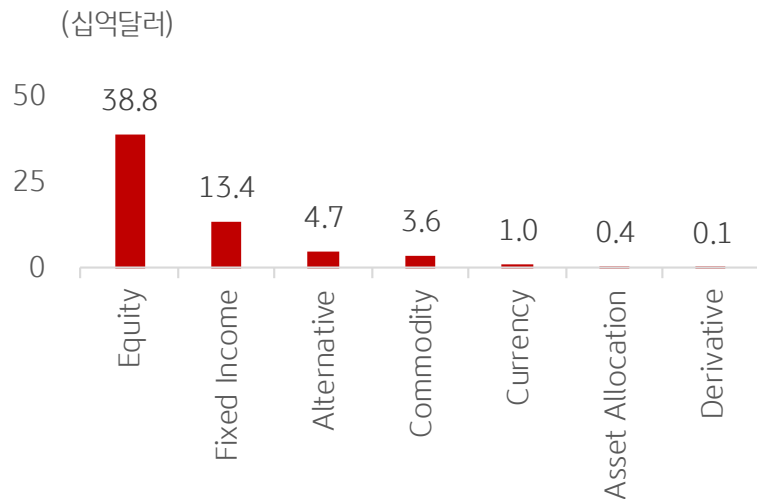
구분	유형별 순매수 상위 주요 ETF	개요	금액(백만달러)
테마	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 ETF	반도체 +3배	826
	DIREXION SEMICONDUCTOR BEAR 3X ETF	반도체 -3배	81
	SPDR GOLD SHARES ETF	금 현물	58
	INVESCO CURRENCYSHARES JAPANESE YEN TRUST ETF	엔화	27
채권/인컴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	미국 배당성장주	222
	J.P. MORGAN NASDAQ EQUITY PREMIUM INCOME ETF	나스닥 커버드콜	100
	JP 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	S&P500 커버드콜	33
	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	미국채(20년 +)	32
시장대표	PROSHARES ULTRAPRO QQQ ETF	나스닥100 +3배	339
	SPDR SP 500 ETF TRUST	S&P500	81
	PROSHARES ULTRA QQQ ETF	나스닥100 +2배	78
개별종목	DIREXION DAILY TSLA BULL 2X SHARES	테슬라 +2배	186
	GRANITESHARES 2.0X LONG NVDA DAILY ETF	엔비디아 +2배	34

※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KB자산운용, '25.4.30 기준

R 미국 ETF 시장 동향

- 주식형 ETF의 순유입액은 전월 669억 달러에서 388억달러로 감소. 투자자들은 전월에 이어 중소형주 익스포저를 줄여 관련 ETF에서 58억달러가 순유출됐고, 미국 대형주에는 355억 달러, 브로드마켓 유형 ETF에는 118억달러가 유입. 기술주 반등을 기대하며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SOXL)에 25.8억달러 유입되는 등 방향성 투자 상품 유입도 전월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주식형 레버리지 순유입 50억달러)
- 테마·스타일형 주식 ETF로의 자금 흐름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비트코인과 귀금속 ETF 등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수요가 증가. 비트코인 ETF IBIT은 27억달러 유입되며 월간 순유입 상위 8위에 올랐고, 금 ETF IAU와 GLD에는 총 24억달러가 순유입
- 미국에 대한 신뢰 저하, 중국의 미국채 매도 우려 등으로 미국 장기채의 안전자산 역할이 약화. 전월까지 순유입을 기록했던 장기채 ETF에서는 49억달러가 순유출. 반면, 비교적 변동성이 적고 단기 운용에 유리한 단기 채권형 ETF에는 약 200억달러가 순유입

기초자산별 자금유출입 동향



최근 1개월 순유입 상위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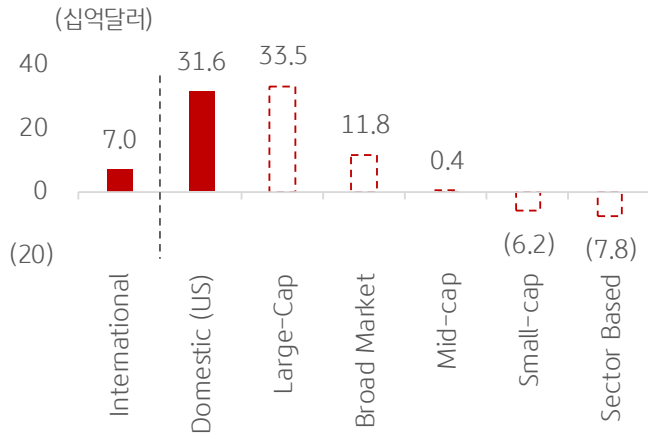
금액(억달러)

Vanguard S&P 500 ETF	208.8
SPDR Bloomberg 1-3 Month T-Bill ETF	59.8
iShares 0-3 Month Treasury Bond ETF	53.3
Schwab Mortgage-Backed Securities ETF	48.8
Vanguard Total Stock Market ETF	44.8
Vanguard Short-Term Bond ETF	38.6
SPDR Portfolio S&P 500 ETF	36.1
iShares Bitcoin Trust ETF	26.9
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ares	25.8
Vanguard Growth ETF	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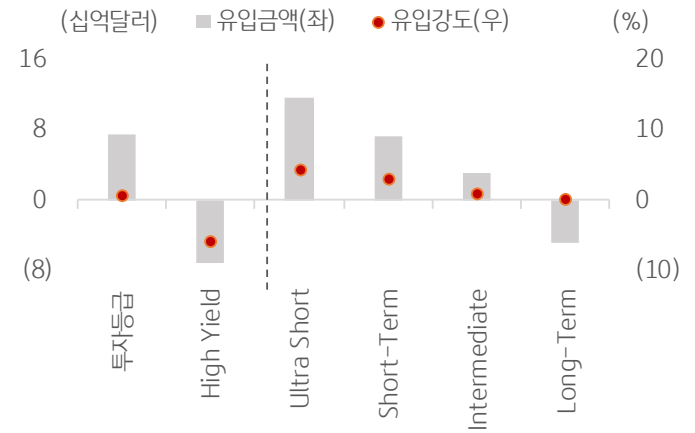
※ 출처: Bloomberg, KB자산운용, '25.4.30 기준

R 미국 ETF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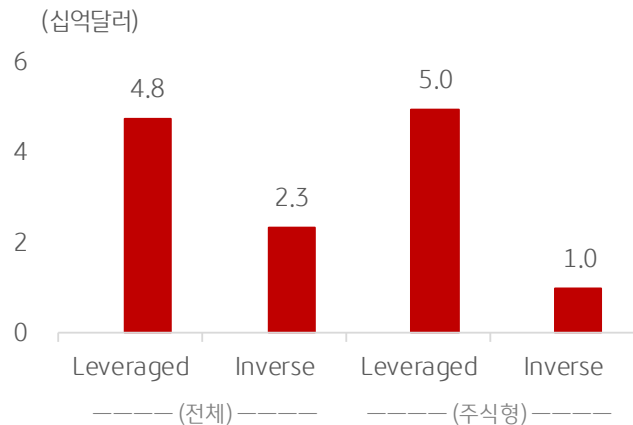
주식형 자금유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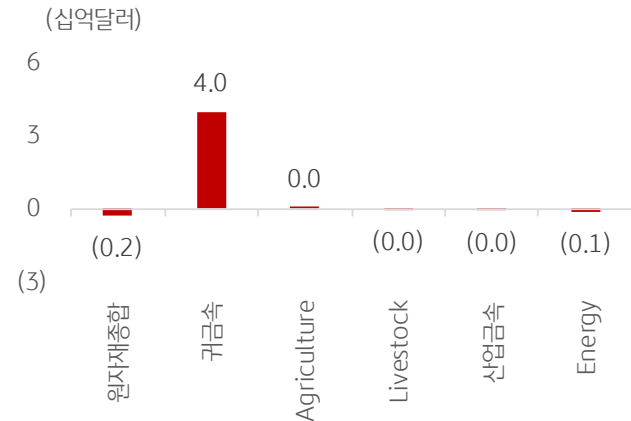
채권형 자금유출입 동향



방향성 투자 자금유출입 동향



원자재 자금유출입 동향



※ 출처: Bloomberg, KB자산운용, '25.4.1 ~ '25.4.30 기준

R 투자위험

<p>커버드콜 전략 수행에 따른 위험</p>	<p>이 투자신탁의 기초지수는 커버드콜 전략을 수행하므로 주가가 하락하거나 횡보 또는 완만한 상승을 보일 경우 일반 주식형 펀드 대비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하거나 하락을 일정부분 방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커버드콜 전략 수행에 따라 주식지수 가치가 상승하는 강세장일 때 주식지수를 매수 후 보유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수익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주식지수 가치가 하락하는 약세장일 때는 손실에 제한이 없으므로 동 전략이 무조건적인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p>
<p>국가 위험 및 정책변경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 지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국가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p>
<p>자금 송환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 국가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국제금융결제와 관련한 송금지연 등 사유 발생시 한매금액 지급연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p>
<p>상장폐지 위험</p>	<p>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이 투자신탁의 추적대상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관계수가 일정수준 미만으로 3개월간 지속되는 경우,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회원이 없는 경우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은 상장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수산출기관이 지수발표를 중단하기 되는 등의 이유로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하는 지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공익 실현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이 투자신탁은 상장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은 해지되고 잔여자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자산 분배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유통시장을 통한 집합투자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p>
<p>순자산가치와 가격의 괴리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며 유통시장에서 시장가격으로 매매됩니다.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NAV, Net Asset Value) 및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의 시장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순자산가치대비 높게 거래되거나 낮게 거래될 수 있으며, 유동성공급자의 헤지수준과 헤지방법에 따라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괴리도는 줄어들거나 확대될 수 있습니다.</p>
<p>ETF투자에 따른 과세위험</p>	<p>이 투자신탁을 개인투자자가 한국거래소 시장을 통하여 매매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과표기준가의 증분과 매매이익 중 작은 값이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입니다. 이러한 보유 과세 체계에서는 매매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매매손실에 대해서는 손익통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의 매매 건별로 이익발생시점에서 계산한 과표의 합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적용기준을 넘어서면서 이에 해당하는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p>
<p>지수산출방식의 변경 및 중단 위험</p>	<p>이 투자신탁의 기초지수를 산출, 관리하는 지수산출기관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출방식이 대폭 변경되어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이상 그 지수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산출기관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지수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 등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 투자신탁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폐지 및 이 투자신탁의 전부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익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p>

※ 위 내용은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파악된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 투자자 유의사항

-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 금융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 본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